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8월 18일

CUOMO 주지사, 최근 SUFFOLK 카운티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갑작스런 홍수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연방 전문 지원을 요청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자리한 Suffolk 카운티의 여러 커뮤니티에 심각한 피해와 건물 파손을 야기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Suffolk 카운티와 주변 관할지역에 대한 전체 피해 조사를 요청해달라고 뉴욕주 국토안보과에 지시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폭우 피해를 입은 자산의 복구 및 보강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과 저리 재난 지원 용자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연방정부가 지난 주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롱아일랜드 주민들을 위해 추가 지원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주 관리와 지방 관리들은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이 이상 기후의 여파에 따른 추가적인 도움을 롱아일랜드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폭우 피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 연방 파트너들과 협력해나가기를 고대합니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은 2014년 8월 13일 롱아일랜드 Islip에서 뉴욕주의 24시간 강우 기록이 깨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 24시간 강우량은 13.5인치로, 이는 2011년 열대성 강우 Irene 발생 시 뉴욕 Tannersville에서 발생한 이전 뉴욕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8월 13일 자정부터 오전 10시30분 사이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6,200채의 주택과 상가들에 전기가 나갔고, 1,000여채의 가구가 폭우와 홍수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홍수로 여러 주요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운전자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8월 13일에 주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여러 주기관에서는 작업반과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지역의 폭우 복구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uffolk 카운티, Towns of Babylon, Brookhaven 및 Islip에 현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DHSES 장관 Jerome M. Hau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피해의 경우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방 및 현지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활동을 조율해가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전체 피해를 살펴보고 Suffolk 카운티, 거주민 및 주변 관할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나갈 것입니다.”

Korean

이번 조사 결과로 연방 자금을 심각한 폭우로 손상된 시설의 교체와 수리 및 긴급 작업을 위해 비용 공유 방식으로 주 및 관련 지방정부 및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로 중소기업청(SBA)에서 개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재난 지원 용자를 제공할지 여부도 결정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